

韓國 基督教 高等教育機關의 目標와 機能의 評價를 위한 豫備的 調査

崔 志 雲*

- I. 머릿말
- II. 本 調査의 目的
- III. 調査方法
- IV. 調査對象과 資料蒐集 및 處理
- V. 本 調査의 制限點
- VI. 發見된 事實(資料의 處理結果)과 解釋
- VII. 結論(要約 및 提言)
- VIII. 參考文獻

I. 머릿말

本 調査는 昨年(1972년) 1月부터 서울女子大學, 啓明大學, 崇田大學의 3個大學 研究팀이 亞細亞 基督教 高等教育 發展委員會(Commission for the Advancement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로부터 財政的 支援을 받아 「韓國 基督教 高等教育 프로그램에 관한 綜合的 研究」를 共同으로 推進하였던 바, 그 一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의 綜合的 研究는 크게 세가지 領域으로 나누어져 3個大學 研究팀이 各已 分擔하였는데 崇田大學팀은 第1領域인 高等教育機關의 目標와 機能에 관한 評價를 맡게 되었다. 本人은 이 第1領域의 課題研究팀의 一員으로 주로 高等教育의 目標와 機能에 관한 調査研究에 注力하였다.

이 調査에 관한 報告書는 이미 研究支援機關에 提出된 바 있으나 紙面의 制限때문에 調査結果의 主要骨子만을 간추려서 報告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이번 機會에 그 制限을 補充하는 뜻에서 調査를 통하여 얻어진 資料를 根據로하여 여기에 掲載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 文理科大學(서울) 副教授

Ⅱ. 本 調查의 目的

本 調查의 主目的은 :

(1) 韓國의 現 基督教 大學들이 表明하고 있는 教育目標의 妥當性과 大學構成人(주로 敎職員, 學生, 卒業生, 敎界人士)들에 의해 陳述된 目標의 受容程度를 把握하고,

(2) 그 機關이 現實的으로 當面하고 있거나 또 將次 惹起될 것으로 豫想되는 問題의 潛在性을 찾아내어,

(3) 이를 研究에서 採擇키로 한 여러가지 接近方法(例; 세미나, 협의회, 文獻的 研究, 面接등)에 聯關시켜 所期의 研究結果를 效果的으로 收穫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었다.

Ⅲ. 調查方法

本 調查에서는 주로 質問紙法을 擇하였다. 이 質問紙는 研究初期에 本 研究팀에 의하여 推進되었던 세미나의 參席者와 4명의 研究協力委員들 사이에서 學論되었던 問題點들과, 또 夏期 聖職者修養會에 參席하였던 約 450명의 敎會 牧師와 傳道師, 大學生 聖經研究會員 900명을 대상으로 豫備的으로 實施한 質問의 結果를 土臺로 作成되었다.

이 道具(質問紙)에 포함된 內容의 範圍는 大學의 目的과 理念, 그리고 이 目的과 理念具顯을 위하여 發揮되는 機能——敎授, 訓練, 研究, 奉仕, 運營등——에 關連된 諸 事項이다.

그러나 이러한 內容도 調查對象에 따라 묻는 말과 問項數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가 있게 됨은 勿論이다. 대체로 問項數에 있어서 敎授와 學生들을 對象으로 한 道具에 24問, 基學敎 大學의 卒業生 基督教中等學校의 校長과 校牧 그리고 敎會의 現職牧師를 對象으로 한 質問紙에는 19問으로 構成되어 있다. (附錄 質問紙 參照) 對象別 質問紙의 項目과 問項數는 다음 表와 같다.

質問紙 構成

項 目	對 象		
	敎 授	學 生	卒業生 中等敎員 牧師
1. 주로 目的과 理念에 關連된 問項	5	7	4
2. 주로 機關의 機能과 全般事項에 關連된 問項	18	16	14
3. 開放된 問項(自由反應問項)	1	1	1
計	24	24	19

Ⅳ. 調査對象과 資料蒐集 및 處理

調査對象은 高等教育機構를 形成하는 主要 構成員인 理事, 重要責任을 맡은 行政家, 教授, 職員, 學生들과 機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人士들로서 卒業生, 學父母, 教會指導者 그리고 基督教中等學校 幹部職員들을 選定하였다. 그러나 質問紙 回收 可能性의 稀薄性 때문에 理事, 行政者, 學父母 그리고 職員에 限해서는 面接으로 對替키로 하고 質問對象에서는 일단 除外하였다.

質問紙의 配付와 回收狀況은 다음 表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配付에 비하여 回收率은 57.5%로서 그 範圍는 最下 33%에서 最高 63%에 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回數率이 낮은 것은 이 質問紙 調査가 進行되고 있는 도중 大學이 休校措置中에 있었다는 점과 또 郵便으로 配付回收해야 하는 多少 번거로운 節次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質問紙의 配付와 回收狀況

대 상	배 부 수(%)	비 고
1. 학생	2,938	1,850(63.0)
2. 교수	348	115(33.0)
3. 졸업생	166	67(40.4)
4. 목사	99	33(33.3)
5. 기독교 고등학교	150	58(38.6)
	소계 3,701	2,128(57.5)
6. 교직자(교회)	450	119(26.4)
7. 대학생 성경연구회원	900	210(23.3)
	소계 1,350	329(24.4)
총 계	5,051	2,452(48.5)

蒐集된 資料의 處理는 우선 質問紙 調査對象別로 하고 이를 同一한 項目別로 相互比較해 볼 수 있도록 綜合하였다. 綜合比較하는데 있어서 質問對象에 따라 따로 評點을 주지 않았고 모두 百分比로 處理 表示하였다. 處理된 結果中 이 報告에는 紙面上 必要部分만을 이용하였다.

Ⅴ. 本 調査의 制限點

이 調査는 위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本 研究팀이 企圖한 여러가지 接近의 相互補完의 한 手段으로 實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진 資料도 自然히 制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本 調査는 그 目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韓國의 基督教大學들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이나 課題 또는 앞으로의 指向點들에 대한 意義있는 示唆點(suggestions)을 얻는데 불과하다. 그러

므로 이 調査를 통하여 얻은 資料로서 最終的 判斷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制限點이 있음을 附言하지 않을 수 없다.

VI. 發見된 事實(蒐集된 資料의 處理結果)과 解釋

1-1 [標榜된 目標은 學生, 教授, 關係 人士들에 의하여 그다지 妥當性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며, 명백하게 理解도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自身の 生活에 그다지 깊이 反映시키려 하지도 않고 있다.]

表現된 目標에 대하여 “아주 타당하다”고 反應한 수는 전체적으로 13.3%로 아주 낮은 편이고, “그런대로 좋다”고 反應한 수는 40.1%로서 比較的 높은 比率이다. “타당치 못한 데가 있다”고 否定的으로 表明한 수도 26.5%로서 比較적 높은 反應率이다. 否定的 反應의 比率은 教授보다 學生이, 學生보다 卒業生과 中等教職員 및 牧師에 있어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I 參照)

표 I 표현된 목표에 대한 의견

(%)

	教 授	學 生	卒·教·牧	計
아주 타당	32.2	12.5	8.9	13.3
그런대로 좋다	47.8	39.8	37.3	40.1
타당치 못한	16.6	25.5	45.6	26.5

※ 卒=卒業生, 教=基督教中等學校教職員, 牧=牧師.

表明된 目標에 대하여 명백히 이해하고 있다고 反應한 수는 15.4%이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反應한 比率은 76.9%로 가장 높다. 目標理解의 程度는 學生보다 教授가 훨씬 높은 편이다. (表 II 參照)

표 II 표명된 목표에 대한 이해도

(%)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명백히 이해	56.5	12.8	—	15.4
부분적 이해	31.7	79.1	—	76.9

표 III 목표구현의 노력

(%)

	교 수	학 생	계
노력하고 있다	83.4	10.3	14.6
가끔 생각해 본다	11.3	49.0	46.8
생각지 않음	4.3	36.8	34.9

表明된 目標를 日常生活을 통하여 具現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教授는 比較的 積極性(83.4%)을 띠고있는 편인데 대하여, 學生은 극히 消極的(10.3%)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끔 생각

해 볼 정도"가 46.8%,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否定的으로 反應한 것이 約 35%로서 看過해서 는 안될 數이다. (表 III 參照)

〈解釋〉表現된 目標가 妥當性 있게 받아들여지거나 또 잘 理解되지 못하고 있음은 目標의 陳述에 있어서 너무나 抽象的이어서 具體的으로 生活의 指標를 提示해 주지 못하는 데 主原因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한편 現代 大學들이 共通하게 多目的(multi-purposes) 機關으로 指向하고 있는 傾向때문에 大學構成員들에 의하여 明白히 受容되지 못하고 있다고 풀이 할 수 있다. 各 機關은 構成員들에 게 깊이 어필(appeal)할 수 있는 自體의 目標에 관한 再檢討와 陳述이 不可避하게 要求된다고 할 수 있다.

1—2 [韓國의 基督教大學은 社會에 있어서 存在해야 한다는 강한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自體의 生命力(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基督教大學의 存在意義에 있어서, 教授는 約 87%, 學生은 65.4%, 卒業生, 中等教職員 및 牧師는 93.0%가 "존재해야 한다"는 데에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學生은 상당한 수가 否定的 反應(29.0%)을 보이고 있음을 注視해야 할 것 같다. (表 IV 參照)

표 IV 기독교 대학의 존립의의

(%)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긍정적 반응	86.9	65.4	93.0	68.6
부정적 반응	10.5	29.0	5.7	26.3

이와같은 基督教大學의 存在意義에 대한 강한 反應에도 불구하고 현 基督教大學의 이미지는 過去에 비하여 "흐려져 가고 있다"는 데에 反應이 集中되고 있다. (전체 57% : 教授 56.5%, 學生 55.8%, 卒業生·中等教師·牧師 70.9%—表 V 參照)

표 V 기독교 대학의 상(이미지)

(%)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뚜렷해지고 있다	3.5	11.8	6.3	11.0
변화없다	33.0	16.4	16.5	17.3
흐려져가고 있다	56.5	55.8	70.9	57.0
기타	7.0	15.9	6.4	14.7

基督教大學으로서의 雰圍氣(禮拜, 信仰活動, 教授講義態度, 對話內容등)에 대해서는 "강한 느낌"을 준다고 反應한 수는 전체적으로 約 42%이고, "보통"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수는 約 55%로 나타나 있다. (表 VI 參照)

또 이와같은 基督敎的 雰圍氣는 過去보다 强하게 造成되어 간다(전체 6.8%)기 보다 過去와

표 VI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분위기

(%)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금 정	42.6	42.9	29.1	42.0
보 통	33.0	32.6	46.8	33.7
부 정	5.2	22.1	22.8	21.2

별 차이가 없거나(전체 43.0%) 오히려 喪失되어 가고 있는(전체 40%)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VII 參照)

표 VII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분위기 변천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과거보다 강하게 조성	5.2	7.1	5.1	6.8
과거보다 별차이 없음	54.8	44.2	19.6	43.0
점차 상실되어 감	30.4	35.7	66.5	37.7
급격히 상실되어 감	4.3	2.2	1.9	2.3
모르겠음	1.7	8.6	3.2	7.8
무응답	3.5	2.3	3.8	2.4

〈解釋〉 韓國社會에 있어서 基督教 大學이 存在해야 할 強한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現 基督教 大學은 大學으로서의 이미지나 그 自體의 雰圍氣를 維持하거나 造成하지 못하고 있음은 大學 自體의 生命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主要原因의 하나로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基督教 大學들이 多目的 大學으로 바뀌어져 감에 따라 다른 一般 大學과 區別이 없는 非 基督教 大學化의 過程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現 基督教 大學은 “高等한 市民”과 “指導의 人物”을 養成하는 機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人物을 養成하는 機關의 形態로 나아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現 基督教 大學의 類型을 “高等市民”의 養成機關으로 보는 것이 62.3%로 壓倒的으로 많고, 다음이 “指導의 人物”의 養成機關으로 보는 것이 2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專門 技術人”의 養成機關이라는 데에는 5.5%이고, “學者”의 養成機關에는 4.4%(教授 6.2%, 學

표 VIII 기독교 대학의 유형 (현재 및 미래)

유 형	현 재 (%)	미 래 (빈도)
1. 고등시민의 양성기관	62.3	1350
2. 지도적 인물 양성기관	23.0	1270
3. 전문기술인 양성기관	5.5	278
4. 학자 양성기관	4.4	234
5. 기타	—	—

生 4.3%)라는 극히 낮은 比率로 反應하고 있다. (表 VIII 參照)

將次 지향해야 할 大學의 類型으로써 위의 두가지 類型인 高等市民과 指導의 人物의 養成 機關을 들고 있다.

〈解釋〉 이는 다른 角度에서 보면 장차 指向해야 할 大學의 類型과는 關係없이 全體的으로 現 基督教 大學은 專門技術 訓練이나 學問的 優秀성을 維持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如前히 基督教 大學은 物質·技能面보다 精神面의 社會的 貢獻에 主 役割을 擔當 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4 [基督教 大學이 앞으로 특별히 注力하여 길러내야 할 人間型은 사랑과 奉仕의 精神을 基盤으로 한 言行一致의 誠實한 人間과, 새로운 것을 生産해 낼 수 있는 創造的인 人間과, 均衡있게 잘 統整된 全人的 人間이라 볼 수 있다.]

現在뿐 아니라 앞으로 基督教 大學에서 길러내야 할 人間型에 대하여 教授는 (1) 誠實한 사람 (2) 사랑과 奉仕의 사람 (3) 創造的인 人間 (4) 基督教的으로 思考하고 行動하는 사람으로, 學生은 (1) 誠實한 사람 (2) 사랑과 奉仕의 사람 (3) 創造的인 人間 (4) 全人的인 사람으로, 卒業生·中等教職員 및 牧師는 (1) 基督教的으로 思考하고 行動하는 사람 (2) 誠實한 사람 (3) 사랑과 奉仕의 사람 (4) 全人的인 사람의 順位로 各各 反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誠實한 人間〉, 〈創造的인 人間〉, 〈全人的인 人間〉의 順位로 反應하고 있다. (表 IX 參照)

표 IX 기독교 대학이 육성해야 할 인간형

(빈도순위)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1. 성실한 인간	(1)	(1)	(2)	1
2. 사랑과 봉사의 인간	(2)	(2)	(3)	2
3. 창조적 인간	(3)	(3)	(5)	3
4. 전인적 인간	(6)	(4)	(4)	4
5. 실력있는 인간	(7)	(5)	(6)	5
6. 기독교적인 신앙과 행동인	(4)	(7)	(1)	6
7. 의로운 인간	(5)	(6)	(7)	7

1-5 [現 基督教 大學의 目標은 위로 校是로 부터 全般的 目標, 學內 大學別 目標, 學科別 目標에 이르기까지 部分的으로라도 再檢討되고 再陳述되어야 함이 불가피하게 要請되고 있다.]

現 基督教 大學의 目標에 對한 改善與否에 대하여 校是에 있어서는 改善 對 改善不要의 比率는 47.9% 對 36.0%, 大學 全般目標에 있어서 76.0% 對 13.1%, 學內 大學 및 學科에 있어서 72.3% 對 15.3%라는 壓倒的인 比率로 改善을 要求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提示해온

發見點(1—1)을 基礎로 해 보더라도 당연한 歸結이라고 할 것이다. (表 X 參照)

표 X 목표(대학전반적~학과)에 대한 개선의 필요도

	개	선	개	선	불	요(%)
1. 교시(상징적 표어)	47.9		36.0			
2. 대학전반목표	76.0		13.1			
3. 학내의 대학및 학과의 목표	72.3		15.3			

〈解釋〉 이미 앞서서도指摘한 바와 같이 現 基督教 大學들이 多目的 大學으로 指向하고 있어 뚜렷하고 特異한 個性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時代的 變化와 要請에 大學이 即應하지 못하고 있고 또 表現된 目標가 明確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거나 뚜렷하지 못한데 主 原因이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2-1 [基督教 大學은 韓國의 教育, 思想, 宗教 및 社會文化와 國際關係의 諸 領域에는 어느 정도 貢獻하고 있으나, 產業經濟 및 政治의 兩 領域에는 別로 貢獻하지 못하고 있다.]

基督教 大學의 韓國社會의 發展에 貢獻하는 정도에 대한 質問에 있어서 <教育面>에서는 “공헌한다”와 “공헌하지 못한다”의 比率은 70.8% : 10.7%, <思想面>에서는 51% : 18%, <宗教面>에서는 74.4% : 8.3%, <社會文化面>에서는 54.2% : 17.7%, <國際關係面>에서는 32.8% : 17.5%로서 壓倒的으로 貢獻한다는 데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產業經濟面과 政治面의 兩 領域에 있어서는 “공헌한다”와 “공헌하지 못한다”의 比率이, <產業經濟>에 25.7% : 36.4%로 <政治面>에는 18.8% : 45.5%로서 別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資料에 의하면 韓國의 基督教 大學은 主로 精神界에는 어느 정도 貢獻하고 있으나 物質界에는 別로 공헌하지 못하고 있다. (表 XI 參照)

표 XI 기독교 대학의 공헌도에 대한 대비표

(공헌 : 비공헌)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교	육	71.3	5.2	70.6	11.5	71.5	5.7	70.8	10.7
사	상	44.4	15.6	50.5	18.2	60.8	17.7	51.0	18.0
종	교	86.1	2.6	74.2	8.1	67.7	14.6	74.4	8.3
사	회	54.7	14.8	53.8	17.5	57.6	22.2	54.2	17.7
국	제	28.7	22.6	36.4	27.0	51.9	13.9	32.8	17.5
상	업	30.4	27.0	25.7	35.9	21.5	49.4	25.7	36.4
정	치	33.0	27.0	17.3	46.6	25.4	45.6	18.8	45.5

〈解釋〉 基督教 大學들이 대부분 綜合大學으로서의 多目的 大學으로 指向한다고 하면 精神界 뿐만아니라 政治, 經濟 및 產業界 등에도 크게 貢獻할 수 있도록 均衡있는 發展에 注力해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2 [韓國의 基督教 大學은 그 機能을 大學內로 부터 地域社會, 全國的인 範圍를 넘어

國際的 水準에까지 擴張해 나가야 한다.]

現 韓國의 基督教 大學이 어느 範圍에까지 影響을 미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反應의 順位를 보면 “全國的”수준이 34.2%로 가장 많고, “地域社會”수준이 30.3%로서 그 다음이고 “국제적”수준이 13.2%로 나타나 있다. (表 XII 參照)

표 XII 대학기능의 확대범위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1. 전국적 수준	50.4	33.1	35.4	34.2
2. 인근지역사회	21.7	30.8	31.0	30.3
3. 국제적 수준	5.2	31.2	18.4	13.2

〈解釋〉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基督教 大學이 現 段階에서는 주로 國內水準에서 奉仕해야 할 課業을 찾아야 하며, 將次는 國際的인 水準에까지 影響을 주는 大學으로 發展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國際的 水準의 大學으로 指向하도록 힘써야 할 課業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 [現 基督教 大學이 특별히 關心을 두어야 할 教育對象은 社會經濟的으로 富裕한 層의 子女들 뿐만 아니라 經濟的, 文化的, 地域的으로 疎外된 庶民層의 子女에 이르기까지 全階層의 子女들을 包含해야 한다.]

韓國의 現 實情에 비추어 基督教 大學이 특별히 關心을 두어야 할 教育對象에 대한 質問에 대한 反應의 結果는 富裕層, 中産層, 庶民層의 子女들을 골고루 配慮해야 한다는 데에 46.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것저것 가릴 것 없다”는 데에 反應한 것이 22.8%이다. 실제로 이 두가지 項目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합치면 69.4%의 높은 反應率이다. 庶民層의 子女에 특별한 關心을 두어야 한다고 反應한 수는 16.6%로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比率이다.

표 XIII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교육대상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1. 부유층 자녀	5.2	5.4	8.9	5.7
2. 서민층 자녀	10.4	17.0	17.1	16.6
3. 중산층 자녀	13.0	6.6	9.5	7.2
4. 가릴것 없다	43.5	21.5	23.4	22.8
5. 골고루	27.0	48.5	41.1	46.6
6. 무응답	0.9	1.2	—	1.1
계	100.0	100.0	100.0	100.0

〈解釋〉 經濟的, 地域的 職業 및 制度的인 理由때문에 高等教育을 받기를 원하나 機會를 얻지 못하고 있는 소위 “疎外된 對象”에게 基督教 大學은 특별히 關心을 두어야 한다고 여겨진

다. 初期의 基督教 大學은 出發에 있어서 이들을 주로 對象으로 삼았던 것을 想起한다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지나쳐버릴 수 없는 것은 卒業生에 대한 繼續 教育의 프로그램이다.

2-4 [基督教 大學은 주요 構成員인 學生의 入學, 教授와 理事의 招聘, 그리고 高位行政責任者의 任命에 있어서 이들의 信仰問題를 超越하여 널리 그 門戶를 開放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學生의 入學許可, 教授招聘, 理事會 構成 및 高位行政責任者의 任命에 있어서 주요 基準의 하나가 될 수 있는 信仰與否에 대한 質問에 反應한 結果는 다음 表와 같다. 즉 高位行政責任者만을 제외하고는 “信仰與否를 가릴 것 없다”에 壓倒的인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고, 다음이 “基督教에 理解를 가지고 있는者”에 몰려있다.

이를 보면 먼저 <學生選拔>에 있어서 “信仰與否에 關係없이”에 52.0%, “믿지 않는 學生도”에 34.9%, <教授招聘>에 있어서는 “信仰與否를 가릴 것 없다”에 58.5%; “믿지 않아도 基督教에 理解있는 者”에 34.8%로 나타났고, 理事會 構成에 있어서는 “不信者라도”에 57.7%, “基督教에 理解있는 者”에 35.6%로 각각 나타나 있다. 그런데 <高位責任者>의 任命에 있어서는 “信者가 아니더라도 基督教에 理解있는 者”에 4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信仰與否 가릴 것 없다”에 25.6%로 각각 나타나 있다. (表 XIV 參照)

표 XIV 신앙을 토대로한 대학인원(학생, 교수, 이사, 행정자)의 구성에 대한 의견(신앙필요: 불필요)

	교 수		학 생		계	
	필 요	불 필 요	필 요	불 필 요	필 요	불 필 요
1. 학생선발에 있어서	8.1	89.1	6.9	86.6	9.8	86.9
2. 교수초빙에 있어서	55.7(47.1)	41.7	36.7(34.1)	59.6	37.8(34.8)	58.5
3. 이사 초빙에 있어서	48.7(39.1)	38.3	37.2(35.4)	58.9	37.8(35.6)	57.7
4. 고위 운영 책임자	87.0(52.2)	9.5	65.6(48.6)	26.6	66.8(48.8)	25.6

주: ()내의 수자는 “신자가 아니라도 기독교에 이해있는 인사”를 표시함.

<解釋> 위의 結果에 있어서 集中되어 있는 두가지 項目은 實質的으로 信仰을 超越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基督教 大學은 信仰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門戶를 社會 各領域에 널리 開放하여 收容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야 할 必要가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2-5 [基督教 大學에서 必須課程으로 베푸는 基督教 課程(禮拜, 教科目, 宗教活動 프로그램)은 마땅히 계속 實施되어야 하나 教育의 效果는 그다지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施行方法에 있어서는 選擇課程으로 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基督教 課程을 禮拜, 基督教 科目, 各種 宗教活動프로그램 별로 나누어 그것의 施行(實施) 與否, 教育의 效果面, 앞으로의 施行方法 등 세가지 次元으로 나누어 反應케 한 結果는 다음

과 같다.

먼저 <施行與否>에 대하여 “課程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肯定的 反應 對 “없는 것이 좋겠다”는 否定的 反應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禮拜에 있어서는 62.3% : 22.2%, 둘째로 基督教 科目에 있어서는 62.3% : 24.6%, 셋째로 宗教活動에 있어서는 59.2% : 15.7%로 각각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 意見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學生의 反應은 教授나 卒業生·牧師보다 그다지 積極的인 것이 못된다. (表 XV 參照)

표 XV 기독교 과정의 시행여부에 관한 의견 (긍정대 부정의 대비)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1. 예 배	82.6	8.7		58.4	24.4		92.4	6.3		62.3	22.2	
2. 과 목	89.5	1.7		58.3	27.8		89.9	3.8		62.3	24.6	
3. 종교활동	86.1	1.7		54.9	17.6		89.8	3.8		59.2	15.7	

<教育効果面>에 있어서 “成果가 있다”는 肯定的 反應과 “成果가 없다”는 否定的 表現을 비교해 볼 때, 첫째로 禮拜에 있어서는 50.2% : 37.3%, 둘째로 基督教科目에 있어서는 50.6% : 39.8%, 셋째로 宗教活動에 있어서는 46.0% : 41.5%로 나타나 있다. 대체로 教育効果는 있는 것으로 肯定은 하고 있으나, 그 比率은 否定的 反應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을 볼때 만족스런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表 XVI 參照)

표 XVI 기독교 과정의 교육효과에 관한 의견 (긍정대 부정의 비)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1. 예 배	80.8	12.2		45.5	40.9		82.3	13.3		50.2	37.3	
2. 과 목	80.0	13.0		46.7	43.2		73.4	19.0		50.6	39.8	
3. 종교활동	76.5	10.5		41.6	45.8		76.6	14.0		46.0	41.5	

<施行方法>에 있어서 必須課程, 選擇課程, 現行에서 補強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方案을 提示한 바 그것에 대한 反應結果는 다음과 같다.

첫째 禮拜에 있어서는 必須 : 選擇 : 補強의 비율이 21.8 : 32.2 : 6.8, 둘째 基督教 科目에 있어서는 그 比率이 22.9% : 40.4% : 4.7%이고, 셋째 宗教活動에서는 8.2% : 32.5% : 17.9%로 각각 나타나 있다.

표 XVII 기독교 과정의 시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대비 (필수:선택:보강)

	교 수			학 생			졸·교·목			계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필수	선택	보강
1. 예 배	32.2	52.2	6.1	18.3	31.3	6.7	55.1	28.5	8.9	21.8	32.2	6.8
2. 과 목	37.4	31.0	4.4	19.0	40.4	4.7	58.2	31.0	4.4	22.9	40.4	4.7
3. 종교활동	14.8	59.1	12.2	62.0	29.7	18.2	27.2	46.2	19.0	8.2	32.5	17.9

위의 反應中 教授와 學生은 禮拜, 科目, 活動의 全課程에 걸쳐 選擇課程으로 과할 것을 要請하고 있는데 대하여, 卒業生・中等敎職員・牧師는 宗教活動에 한하여 選擇으로 과하는 데 높은 反應을 보이고, 餘他の 두 課程에는 必須課程으로 과할 것에 보다 더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XVII 參照)

〈解釋〉 基督教 課程은 基督教 大學에 있어서 核心的인 課程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課程을 必須的인 것으로 認定하고 있지만 現行課程의 効果는 적은데 對하여 學生들의 自意에 의한 選擇課程으로 課해질 것을 要請하고 있다는 點은 어떻게 보면 相反的인 反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일 現行 必須課程을 選擇課程으로 바꾸면서도 倍前의 成果를 거두자면 이 課程의 基本的인 再檢討와 再編成과 새로운 運營方案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課程이야말로 餘他の 課程(敎養, 專攻, 選擇등)과 効果의 으로 統合될 수 있으면서도 核心課程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는 方向에서의 새로운 企圖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풀이된다.

2-6 [教授들은 基督教 大學에서의 俸職生活을 통하여 대체로 보람을 느끼고 있으나, 그들의 研究活動을 支援하는 條件들(研究資料, 施設, 研究費支援, 行政的支援 및 補助人力등)에 對해서는 全般的으로 不便을 느끼고 있다.]

현재 俸職하고 있는 大學에서의 俸職生活을 통하여 教授들은 “크게 보람을 느낀다”고 反應한 것이 42.6%, “다소의 보람을 느낀다”에 43.5%로서 一般的으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편(86.1%)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學問的 活動을 支援하는 條件에 對하여 “풍족” 對 “부족”의 비율로 對比해 보면, 研究資料에 있어서 6.9% : 76.5%, 研究施設에 있어서 5.2% : 63.5%, 研究費 支援에 있어서 3.5% : 73.1%, 行政的 支援에 있어서 6.9% : 52.2%, 補助人力面에 있어서 3.4% : 57.4%로 各各 나타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教授들의 學究的 活動에는 크게 不滿인 것으로 斷定할 수 있다. (表 XVIII 參照)

표 XVIII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조건에 대한 의견

(풍족 : 부족의 대비)

	풍	족	부	족
1. 연구자료	6.9		76.5	
2. 연구시설	5.2		63.5	
3. 연구비지원	3.5		73.1	
4. 행정적지원	6.9		52.2	
5. 보조인원	3.4		57.4	

〈解釋〉 위의 資料에 의하면 研究活動의 支援에 있어서 크게 不滿을 表明하고 있다. 이를 다른 角度에서 보면 教授들은 敎育, 研究, 奉仕의 세 領域의 機能中 研究나 奉仕에는 그다지

크게 貢獻하지 못한다고 解釋할 수 있다.

따라서 教授의 學問的 成長에 많은 障礙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成長을 위한 支援과 對策이 크게 要請된다고 할 것이다.

2-7 [學生들은 基督教 大學에서의 生活을 통하여 學問的 成長과 專門職의 準備에 있어서는 不滿과 不安을 느끼고 있으며, 指導性 涵養에는 그다지 不滿을 느낄 정도는 못되나 不安感을 갖고 있다.]

學生들의 大學生活을 學問的 成長, 專門職業 準備, 指導性 涵養의 세가지 側面에서 그들의 滿足度를 反應케 한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로 學問的 成長에 있어서 보면 가장 많은 頻度를 나타내고 있는 項目이 “그저 그렇다”에 5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불만”에 334, 그 다음이 “다소 만족”에 323, 그 다음이 “희망적”인데 209이다. 그러나 肯定的 反應과 否定的 反應의 전체적 比率은 619 : 881로서 不滿과 不安쪽에 좀더 기울어져 있다.

둘째로 職業準備面에 있어서는 “不安하다”에 가장 많은 頻度로서 456, 그 다음이 “對策을 講究中이다”에 404이고, 세번째가 “그저 그렇다”에 401로 두번째의 頻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肯定 對 否定的 比率은 403 : 1362로서 不安, 不滿쪽의 否定的인 面이 壓倒的이다.

세째로 指導性 涵養에 있어서는 “그저 그렇다”에 537로서 가장 많고 “다소 滿足이다”에 257로서 그 다음이고, 세번째와 네번째는 不滿과 不安으로 각각 208과 200의 비슷한 頻度로 反應하고 있다. 肯定 對 否定的 比率에서는 531 : 789로서 肯定보다 否定에 많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學生들은 生活에 不滿과 不安을 느끼고 있다.

〈解釋〉 學生들의 學問的 成長, 職業準備 및 指導性的 涵養에 있어서 不滿, 不安, 否定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理由는 學校內 뿐아니라 社會全般의 여러 領域에서 根源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近源的으로는 校內的 指導體制에서 原因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 對策도 여기에서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은 우선 可能的 限 校內外의 可用資源을 最大限으로 이들의 指導를 위하여 効用하도록 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8 [教授들의 學業(敎養, 專攻, 選擇科目) 指導(講義方法, 學生에 對하는 態度, 擔當科目의 知識, 指導準備, 評價 및 目標達成정도 등)에 대한 學生들의 評價는 滿足도 不滿도 아닌 “中間”정도이나 改善할 餘地가 있다.]

教授의 學業指導에 관한 學生들의 反應을 1) 敎養課程 2) 專攻課程 3) 選擇課程으로 各各 나누어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各課程別로 指導方法을 1) 資料提示와 說明方法(講義方法) 2) 學生에 對하는 態度 3)

擔當科目의 知識 4) 講義 및 教材準備 5) 成績評價 6) 科目目標의 達成度의 여섯가지 類目으로 나누고 이를 “매우 좋다”에서 “아주 貧弱하다”로 5段階로 區分하여 反應케 한 것이다.

여기에서 各 課程의 指導方法 類目別로 가장 많은 反應을 보인 것은 모두 共通하게 “좋다”도 “빈약하다”도 아닌 中間級의 “보통이다”에 集中되어 있다. 그 反應의 範圍는 36.3—49.2이다. (表 XIX 參照)

표 XIX 가장 높은 반응(보통이다)을 보인 비율 (%)

		자료제시	태도	과목지식	준비	평가	목표달성정도
교양	양	42.5	48.9	48.1	44.3	42.6	45.3
전공	공	37.8	40.1	36.3	37.8	39.8	44.6
선택	택	47.5	49.2	43.5	37.5	36.7	47.5

“좋다”라고 肯定的으로 反應한 比率과 “貧弱하다”라고 否定的으로 反應한 比率을 各 課程에 따른 指導方法 類目別로 對比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XX 긍정 대 부정적 반응의 대비 (%)

		자료제시	태도	과목지식	준비	평가	목표달성도						
교양	양	16.9	33.4	20.0	27.4	30.1	17.2	21.1	30.7	13.8	37.5	14.7	35.4
전공	공	32.7	24.8	38.0	18.8	33.1	15.0	31.9	24.9	25.5	30.1	25.9	25.6
선택	택	27.6	18.3	28.0	16.5	40.1	10.2	27.7	18.3	18.6	27.1	21.9	23.6

위의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教養課程에 있어서는 教科科目의 知識(30.1 : 17.2)을 除外한 모든 類目에 있어서 貧弱하다는 反應을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教養課程의 目標達成度에 있어서는 14.7 : 35.4의 比率로서 대단히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專攻課程과 選擇課程에 있어서는 指導方法에 관한 反應을 보면, 評價(專攻 25.5 : 30.1, 選擇 18.6 : 27.1)와 目標達成度(專攻 25.9 : 25.6, 選擇 21.9 : 23.6)의 두 項目을 除外하고는 모두 肯定的 反應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즉 “다소 滿足”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모든 教科課程을 통하여 夙願 所期의 目標를 達成하도록 指導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疑心의 여지가 많다.

〈解釋〉 教養, 專攻 및 選擇의 各 課程에 있어서 教授의 學業指導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은 全體的으로 보통(中間)으로 나타나 있으나 教養課程에 있어서는 不滿을 表示하고 있고 其他의 課程에는 다소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大學의 첫 課程으로 課해지는 教養教育의 擔當教授陣의 劃期的 強化가 要求된다고 볼 수 있겠고, 모든 反應이 肯定도 否定도 아닌 中間(보통)에 集中되어 있음은 全般的으로 보다 教授力(teaching forces)의 強化를 위한 對策(教授招聘, 人力改編, 支援體制, 教授方法 改善, 教授의 向上)이 要求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2-9 [學生들이 大學生活를 통한 自我實現(특히 人生觀, 學業, 職業準備, 身上問題 등)에 있어서 自身에게 도움줄만한 教授가 不足한 상태에 있으며 오히려 同僚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다.]

大學生活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自身에 도움줄만한 教授나 또는 同僚들이 어느 정도 주위에 있는가에 대한 質問에 있어서 學生들의 反應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綜合할 수 있다. 즉 學生들의 自己完成의 側面을 人生觀(價値觀)의 確立, 學問的 成長, 專門職業의 準備, 기타 身上問題의 解決 등 네가지로 區分할 때, 가장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음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教授에 대해서는 學業面에 肯定도 不定도 아닌 反應을 한 “보통이다”(39.9)를 除外하고는 “적은 편”이거나 “없다”고 否定的 反應을 表示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同僚에 대해서는 專門職 準備(적은 편 29.8)에 대해서만 否定的 反應을 表示했을 뿐이고, 나머지 두 項目(人生觀, 身上問題)은 “다소 있다”는 肯定的 表現과 學業面에는 中道的 立場(보통이다 32.6)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學生들이 教授들보다 同僚에게서 生活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XXI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비율 (%)

		인생관(가치관)	학업면	전문직준비	신상문제
교수	수	적은편이다 31.6	보통 39.9	적은편 32.4	없다 31.0
동료	료	다소있다 32.9	보통 32.6	적은편 29.8	다소 24.1

이들의 反應을 肯定的 表現(아주 충분하다, 많다) 對 否定的 表現(적은 편이다, 없다)으로 對比시켜 보면 다음 表와 같이 綜合된다.

표 XXII 학생들의 자아실현에 도움주는 대상에 관한 의견

긍정적(많다)반응과 부정적(적다)반응의 대비(%)

		인생관		학업		전문직준비		신상문제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교수	수	21.7	44.5	27.8	29.1	15.2	50.2	7.3	58.2
동료	료	50.1	24.0	32.5	29.9	16.2	48.0	33.9	28.4

먼저 教授에 대해서 보면 人生觀, 學業面, 專門職 準備, 身上問題의 全 項目에 걸쳐 否定的 表現에 置重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學業面을 除外한 나머지 項目에서는 否定的 反應에 크게 偏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身上問題의 解決이나 專門職 準備에 있어서 그러하다.

同僚에 대한 反應은 教授와 對照의이다. 專門職 準備의 項目을 除外한 全 項目에 있어서 肯定的 反應에 쏠려있다. 특히 人生觀 形成에 있어서 어느 項目보다 더 肯定에 기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평소 生活를 통하여 學生들은 教授들과는 별로 接觸을 하지않고 있으며

또한 相互接觸을 통하여 自己完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그들 同僚들은 서로 接觸도 많으며 실제 어느정도 도움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解釋〉 以上の 資料에 의하면 學生들의 成長發達에 도움을 줄만한 教授人員의 絶對量의 不足, 編制上에 있어서 지나친 學科中心主義(學科間의 交流不振)의 傾向, 學科目指導(講義)偏重, 教授의 校內 滯留時間의 制限, 教授의 遠距離 居住, 對話를 위한 施設缺如 및 制度(例: 學生相談)的 缺陷 등의 여러가지 理由가 있을 것이다.

大學의 生命이 學問의 領域을 달리하는 여러 人士間의 活潑한 對話(Communication)와 交流에 있다고하면 이에 대한 時急한 對策이 要請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0 [學生들의 學業活動面(學習意慾, 豫習復習, 課題履行, 學業態度, 學業의 成就程度)에 대한 教授들의 評價는 比較的 좋은 편이다.]

學生들의 學業活動狀況을 學習意慾, 豫習復習, 課題履行, 受講態度, 學業의 成就程度의 5項目으로 區分하고 각 項마다 “아주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아주 나쁘다”의 5段階로 評價 反應하도록 教授에게 요구하였던 바 그 結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표 XXIII 학생의 학업활동에 대한 교수의 평가

(긍정 대 부정의 대비표/%)

	학 습 의 욕		예 습 복 습		과 제 이 행		강의수강태도		학업성취도	
	좋 다	나쁘다	좋 다	나쁘다	좋 다	나쁘다	좋 다	나쁘다	좋 다	나쁘다
긍정 : 부정	50.5	7.8	22.6	20.0	47.8	7.8	71.3	0.9	46.9	3.5
최고반응	43.5 (좋다)		51.3 (보통)		39.1 (좋다)		52.2 (좋다)		44.3 (좋다)	

全項目에 걸쳐 肯定的으로 反應하고 있으며 그 順位로 보면 講義受講態度, 學業成就度, 學習意慾, 課題履行, 豫習復習의 順序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좋다”로 되어 있는데 順位를 보면 講義受講態度(52.3), 學業成就度(44.3), 學習意慾(43.5), 課題履行(39.1)의 順位로 되어 있다. 이는 肯定 對 否定的 對比에서 나타난 結果와 一致하는 것이다.

〈解釋〉 學生들의 學業活動에 대한 教授들의 評價는 비교적 높은(좋은) 편이라고 하겠는데 學生들이 教授들의 學業指導에 대하여 評價(2-8 參照)한 것과 比較하면 보다 더 厚待하는 評價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學生들이 스스로 課題를 찾아서 解決해 나가는 習性이나 自學的인 態度나 技能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隨伴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2-11 [學生들의 學業을 위한 施設과 學業外의 活動을 위한 施設에 대한 學生들의 反應에 있어서 受講을 위한 施設은 “보통”인 편이며, 圖書資料는 貧弱한 편이어서 자주 利用하지 않고 있다. 또한 學業의 活動을 위한 設備도 대단히 貧弱하여 별로 利用하지 않고 있다.]

學生들의 受講을 위한 施設에 있어서는 풍부(25.7)치도 않고 그렇다고 貧弱(26.0)하지도 않은 보통(36.3)인 편이며, 個別的인 研究를 위한 施設은 매우 貧弱(豐富 對 貧弱의 比率은 22.3 : 50.6, 보통 22.1)한 편이다.

圖書館에 備置한 資料들도 豐富 對 貧弱의 比率은 21.3 : 36.1이다. 한 편으로 學生들은 圖書館을 크게 利用(자주 利用한다고 反應한 數는 22.6)하는 편이라고는 볼 수 없고 가끔 利用(利用 34.9, 가끔 33.5)하는 형편이다.

學業活動을 위한 施設은 거의 度外視되어 있는 형편(豐富 對 貧弱의 比率은 9.0 : 60.6)이다. 保健厚生을 위한 施設들을 “가끔 活用한다”에 가장 많은 頻度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施設의 大幅인 補強이 요청됨을 알 수 있다.

〈解釋〉 學生數의 增加率에 施設의 增加率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은 비단 基督教 大學뿐 아니라 韓國의 全 大學이 共通하게 부딪치고 있는 問題이다. 이 問題는 施設의 絶對量의 不足에 는 問題가 있겠으나 既存施設의 効用方案(例; 活用許容時間의 延長, 多目的 活用등)과 새로운 施設設置에도 보다 더 細密한 計劃이 事前에 充分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2-12 [基督教 大學에 關係되는 機關이나 團體(教會, 隣近地域社會, 同窓會, 産業機關, 國內外 大學 및 學術機關, 政府, 基督教 中等學校...등)와 基督教 大學과의 關係에 있어서 基本的 또는 部分的 改善이 不可避하게 요청(57.0~79.8)되고 있다.]

現 基督教 大學과 比較的 密接하게 關聯을 맺어야 할 機關이나 團體들에 대한 現在의 關係가 어떠한가를 診斷하기 위하여 그것에 대한 改善與否에 관한 意見을 물었던 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XXIV 關聯기관과의 關係성

(%)

기 관 단 체 명	개 선	개 선 불요
1) 교회 및 종교단체	57.2	13.6
2) 인근 지역사회	68.1	10.4
3) 동창회	61.3	12.2
4) 산업기관	57.0	7.6
5) 국내 타 대학 및 학술기관	73.0	6.9
6) 정부(국가기관)	62.9	10.3
7) 국외 고등교육기관·학술기관	66.9	6.8
8) 기독교 중등학교	79.8	7.0
		(졸·중등·목사의 반응)

〈解釋〉 이 表에 의하면 基督教 大學과 關係를 맺어야 할 機關들과의 關係改善에 관한 要請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다른 角度에서 보면 基督教大學은 他 機關이나 團體로부터 疎外되었거나 公共性을 缺如한 그야말로 “私的인 機關”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다. 社

會속에 깊숙히 파고 들어가 社會가 要請하는 大學으로 自體를 들어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13 [大學機構의 全般的인 構成事項(目標, 教育課程과 指導, 機構의 組織, 研究, 學生指導, 厚生機構, 學費, 財政...등)에 관한 改善이 絶실히 要請되고 있다.]

基督教 大學의 現況과 將次的 나아가야 할 方向을 고려할 때 大學의 內的 構成要素들이 과연 改善되어야 할 必要性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教授와 學生들의 反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주고 있다.

大學의 目標, 教育課程과 指導方法, 大學機構 및 組織, 學生指導 및 厚生機構와 施設, 學生들의 教育·研究活動의 支援을 위한 機構와 施設, 學生自治活動機構, 學費, 教授들을 위한 機構와 施設, 財政關係 등에 걸친 9개 項目에 對한 改善의 必要與否에 대하여 反應한 結果는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느 項目도 빠짐없이 改善의 必要가 있음을 強力히 反映시켜주고 있다.

즉 大學의 目標에 있어서 47.9~76.0, 教育課程과 指導에 있어서 71.5~85.8, 大學機構 및 組織에 있어서 70.3~84.1, 學生指導 및 厚生機構에 있어서 54.2~88.8, 教育研究의 支援機構와 施設에 있어서 60.3~78.7, 學生自治活動機構에 있어서 58.9~73.7, 學費에 있어서 75.1~84.6, 教授를 위한 支援機構와 施設에 있어서 53.0~83.4, 財政에 있어서 42.6~58.5로 各各 그 範圍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改善의 必要가 없음을 表示한 比率은 目標에 該當되는 교시에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를 除外한다면 最下 2.6에서 最高 20.9의 範圍에 걸쳐 있는 극히 낮은 反應率이다.

以上을 綜合한다면 現 大學의 體制 自體에 改善이 不可避하게 要請된다고 말 할 수 있다.
(表 XXV 參照)

<解釋> 以上の 資料에서 볼 때 大學의 全般的인 諸 領域에 걸쳐 改善의 必要性이 특히 요청되고 있다(改善 對 改善不要의 比率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現 韓國의 基督教 大學은 現 時代뿐 아니라 오는 時代의 要請에 應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不足한 機關이라고 分明하게 풀이할 수 있다. 한편 基督教 大學은 時代의 要請에 따라서 即應한 自己更新의 努力에도 疎忽히 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앞으로 自體研究와 自體의 一大革新의 機會를 마련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2—14 [基督教 大學이 특별히 注力해 나가야 할 方向은 各種 研究機關과 學問的 및 專門的 大學院 教育의 擴張과 強化이다.]

現 時代의 要請에 비추어 韓國의 基督教 大學이 注力해 나가야 할 方向은 3가지 以內로 指摘하도록 요청한 教授와 學生들의 反應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표 XXV 대학의 내적 사항의 개선여부 (%)

주요항목	개선필요	개선불요
1) 대학의 목표	76.0	13.1
1-1, 전반적 목표		
1-2, 교시	47.9	36.0
1-3, 단과대학, 학과	72.3	15.3
2) 교육과정과 지도방법	80.0	11.1
2-1, 교양과정		
2-2, 전공과정	77.8	15.5
2-3, 선택과 기초학과	71.5	14.8
2-4, 지도방법	85.8	5.1
3) 대학기구 및 조직	84.1	6.7
3-1, 교수-학습조직 구조		
3-2, 행정조직의 구조	70.3	7.5
4) 학생지도 및 후생기구 시설	54.2	18.8
4-1, 교목실 조직		
4-2, 학생상담실 조직	68.8	12.3
4-3, 보건 및 의료시설	88.8	20.3
4-4, 기숙사, 식당, 오락시설	80.6	11.3
5) 학생의 교육·연구의 지원을 위한 기구와 시설		
5-1, 도서관시설과 운영	71.9	16.7
5-2, 시청각 시설과 운영	78.7	7.0
5-3, 박물관 시설과 운영	60.3	11.2
5-4, 실험실습시설 및 활용	75.7	6.1
5-5, 어학실습시설 및 활용	69.8	15.5
5-6, 강당등 특수시설 및 활용	74.8	14.5
5-7, 일반 강의실 설비	77.5	12.2
6) 학생자치 활동기구	73.7	8.0
6-1, 총학생회		
6-2, 대의원회	69.7	8.7
6-3, 종교활동 기구	58.9	13.8
6-4, 각 씨어클 활동기구	68.0	10.4
7) 학비	84.6	5.6
7-1, 등록금		
7-2, 장학금	84.6	6.0
7-3, 학생자치 회비	75.1	9.9(학생만반응)
7-4, 실험실습비	77.6	7.2
8) 교수들 위한 지원기구와 시설(교수만 반응함)		
8-1, 출판실	75.7	8.7
8-2, 연구실	83.4	6.1
8-3, 연구소	75.4	6.1
8-4, 각 학회활동 조직	56.6	16.5
8-5, 대학신문사	53.0	20.9
9) 재정(교수만반응)	58.5	2.6
9-1, 자원(재단수입)		
9-2, 예산구조	47.8	5.2
9-3, 예산집행 구조	51.3	6.1
9-4, 연구비	76.8	5.2
9-5, 기부 및 원조	42.6	5.2
9-6, 등창회 보조금	47.9	6.1

표 XXVI 기독교 대학이 주력해야 할 방향

(교수와 학생의 반응)

항 목	빈 도
1) 각종 연구기관의 강화	187
2) 학부에서 학문위주의 대학원 교육의 방향	115
3) 학부에서 특수 대학원 교육으로	106
4) 학부에서 단기 대학과 대학원 교육으로	71
5) 학부에서 전문대학의 강화로	46
6) 학부 중심의 전공학과외의 강화	44
7) 전문직 훈련기구의 확장	29
8) 기타	10

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에 의하면 基督教 大學이 將次 注力해야 할 方向은 現在의 學部 (Undergraduate) 中心의 教育에서 大學院 (graduate) 教育의 擴張과 同時에 各種 研究機構의 強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解釋〉 基督教 大學 自體의 現實的 狀況으로 보나 韓國社會의 要求로 보나 이제는 學部를 中心으로 한 努力에서 研究와 大學院 教育에 보다 더 注力해야 할 時點에 到達했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2-15 [韓國의 基督教 大學間에는 긴밀한 協調的 關係가 필요한 바 具體的으로 一般 基督教 大學間에는 教授交流, 共同研究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開發, 協議會의 組織과 情報交流, 施設의 共同活用 등의 協力이, 神學大學과 一般 基督教 大學間에는 教授交流, 學生受講의 許用, 同一構內의 併設 등의 具體的 協力方案이 要求되고 있다.]

표 XXVII 대학간의 협력의 필요성

	%
독립적(개별적)운영	6.2
협력해야 한다.	47.3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38.1
통합해야 한다.	5.1
기 타	0.7
무 응 답	2.6
계	100.0

基督教 大學들 間의 協力の 必要性에 대한 反應에는 “協力해야 한다”에 47.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에 38.1이고, “독립적으로 運營되어야 한다”에는 6.2, “통합되어야 한다”에 5.1로 나타나 있음을 볼 때 協力の 必要性이 극히 強調되고 있다. (表 XXVII 參照)

一般 基督教 大學들 間의 具體的 協力 關係로서 3가지 以內로 列舉한 項目의 頻度는 다음 表

와 같이 教授交流, 共同研究, 共同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開發, 協會組織과 情報交流, 施設 共同活用 등의 順序로 나타나 있다.

표 XXVIII 협력사항의 순위

(빈도)

항	목	빈	도
1)	교수교류	188	
2)	공동연구	156	
3)	공동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개발	155	
4)	협회조직과 정보교류	104	
5)	시설 공동사용	84	
6)	학생교류	55	
7)	재단통합	26	
8)	기타	2	

神學大學과 一般 基督教 大學間의 具體的 協力事項을 指摘하도록 한데 대한 結果는 다음 表와 같이 나타나 있다. 즉, 教授交流가 壓倒的으로 높고(144) 그 다음이 學生受講 許容(83)이며 同一構內의 併設과 施設共同使用은 비슷하게(46, 45) 反應을 보이고 있다.

표 XXIX 협력사항의 순위

(신학대학)

항	목	빈	도
1)	교수교류	144	
2)	학생수강 허용	83	
3)	동일구내의 병설	46	
4)	시설공동 사용	45	
5)	재단통합	9	
6)	기타	—	

<解釋> 各 大學이 共通하게 當하고 있는 財源 및 各種 資源의 不足을 相互補完하는 데 있어서나, 個別 大學만으로서는 不可能한 大規模 研究 프로젝트이나 教育 프로그램을 開發하는 데 있어서나, 또 大學의 質的 水準의 向上을 刺戟하는데 있어서 關聯 大學들이 相互協力하는 일은 대단히 重要할 뿐아니라 時急히 實現되어야 할 課題라고 할 수 있다.

2—16 [現 韓國의 6個 基督教 大學에 있어서 啓明大學, 서울女子大學, 崇田大學은 現在의 規模보다 커야 하며, 西江, 梨花, 延世의 3個 大學校는 現在의 크기에 變動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各 大學別 學校의 適正規模(크기)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反應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이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梨花大學은 現狀態(33.2)보다 오히려 적은 것(33.3)을 원하는 形便이고, 延世도 상당한 수가 現在보다 적은 것(17.6)을 원하고 있다. “現狀態가 좋다”에 가장 많은 反應을 나타낸 學校는 西江(34.4)과 延世(40.7)이고, 其他의 啓明, 서울, 崇田

표 XXX 대학의 적정 규모

(%)

	계 명	서 울	승 전	서 강	연 세	이 화
현재보다 적게	2.6	2.1	6.6	1.8	17.6	33.3
현상태대로	19.4	30.0	23.1	34.4	40.7	32.2
현재보다 큰것	29.3	34.8	33.0	26.4	11.4	4.4

의 3個 大學은 現在보다 커야 한다는 데 각각(29.3, 34.8, 33.0) 가장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解釋〉 大學의 適正規模에 대한 一定基準은 設定할 수 없지만 대체로 關聯者들의 平素 大學內의 生活을 통하여 느끼고 있는 點도 基準의 一要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規模가 크면 클수록 大學의 質的 水準의 維持가 어렵게 되고 同時에 學生 個個人的 配慮가 어렵게 되어 所謂 學生들의 疎外感의 助長과 教育에 있어서의 非人間化 現象이 隨伴될 우려가 있음을 一般的으로 指摘하고 있다. 反對로 規模가 적으면 적을수록 教授人力에 있어서 絶對量的 不足으로 多樣한 program을 不可能하게 한다는 結論도 따라오게 된다. 大學의 規模는 이와 같은 觀點에서 考慮되어야 할 것이고 또 뒷받침되는 財源이 問題되므로 위에서 指摘된 大學間의 協力問題와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된다.

2-17 [現 基督教 大學의 發展을 위해서 가장 時急하고 緊要하게 要請되는 事項은 유능한 教授招聘, 財政確保問題, 教育課程 改編, 就業 및 學科指導, 유능한 學生 誘致, 施設補完 등이다.]

표 XXXI 시급히 요망되는 사항(순위)

(교수, 졸업생, 기독교학교 직원, 목사의 반응)

	교 수	졸업생·중등교원·목사	계(순위)
1) 재정확보	77(1)	82(2)	159(2)
2) 유능한 교수초빙	65(2)	114(1)	179(1)
3) 유능한 학생유치	36(4)	69(3)	105(3)
4) 시설과 설비	51(3)	43(6)	94(4)
5) 행정 지도력	32(5)	48(5)	80(5)
6) 학문자유 보장	27(6)	51(4)	78(6)
7) (이하 약함)	—	—	—

現在 基督教 大學의 發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時急하게 要請되는 事項을 自由反應으로 3가지씩 指摘하도록 했던 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教授와 卒業生·中等教員·牧師들은 유능한 教授招聘, 財政確保, 유능한 學生誘致, 施設과 設備補完 등의 順位로 그 緊要성을 列擧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學生들은 보다더 自己 中心的으로 反應을 表示하고 있는데 다음 表와 같은 結果를 보여준다. 즉 教育課程의 改編, 就

業과 講義(學習)指導 改善, 行政制度 改編, 住居 및 自治活動의 強化 등의 順位로 나와있다.

教授·卒業生·中等敎員·牧師, 그리고 學生들의 反應을 綜合하면 대체로 基督教大學이 무엇보다 時急하게 解決해야 할 事項은 教授, 財政, 敎授內容과 指導力의 改善, 施設擴充, 行政力의 強化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表 XXXII 參照)

표 XXXII 학생의 반응 빈도

(순위)

항	목	빈	도(순위)
	교육과정 개편	1,004	(1)
	취업지도 개선	913	(2)
	강의지도 개선	858	(3)
	행정제도 개선	603	(4)
	주거문제	531	(5)
	자치활동	503	(6)
	도서 및 학습조건	350	(7)
	기 타	12	

〈解釋〉 敎授, 卒業生, 基督教 學校職員과 牧師들이 느끼는 點과 學生들이 느끼는 點은 그들의 立場과 觀點을 서로 달리한다는 點에서 指摘事項이 다르다. 즉 前者는 主로 行政的 觀點에서 財政·敎授·施設 등의 主로 機構造成에 關하여 指摘하고 있는데 대하여 後者는 學習者의 立場에서 敎育프로그램과 指導面에 強調點을 두고 있다.

指摘事項은 自由反應으로 表明한 것으로서 大學自體가 深刻하게 느끼고 있거나 當面하고 있는 課題들이다. 이 問題는 對內外 및 學校의으로 解決해야 할 課業이라고 할 수 있다.

VII. 結論(要約 및 提言)

以上에 提示한 發見點들을 다음과 같이 簡單히 要約할 수 있다. 첫째로, 韓國의 基督教大學이 表現하고 있는 目標은 明確히 大學構成員과 關聯者에게 理解도 受容도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目標의 明確한 再陳述이 要請된다고 볼 수 있으며, 둘째로 基督教大學은 보다 더 門戶를 널리 開放하여 각 계층의 子女들을 收容하여 보다 더 廣範圍하게 貢獻할 수 있도록 機能을 強化해야 할 것이며, 이를 可能케 하기 위하여 大學機構를 構成하는 諸要素의 再檢討와 改善이 불가피하게 要求되고 있다. 셋째로 基督教大學은 基督教課程을 核心으로 餘他的 諸課程을 適實하게 統合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敎育의 機能發揮을 위한 諸資源(人的, 物理的, 財政的)의 効用策도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 基督教大學은 일반적으로 크게 資源의 制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克服하기 위한 大學들간의 相互協力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

이러한 要求에 適切히 應할 수 있으면서 同時에 基督教大學의 加速的인 發展을 圖謀하는 意

味에서 改善方案을 提言한다.

1. 基督教大學의 教育目標의 再設定을 위한 提言 ;

基督教大學의 目標의 設定과 그 효율적인 目標具顯을 위해서는 먼저 現時代뿐 아니라 오는 時代가 要求하는 基督教의 人間像을 究明하는 일과 基督教大學이 마땅히 發揮해야 할 役割과 이 役割을 發揮하기 위한 資力(potentialities)의 可能性과 學生들의 特性을 規明하는 작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을 土臺로 하여 大學의 全體 目標로 부터 下位 目標에 이르기까지 一貫된 目標을 設定하고 이를 大學의 全 構成員에 의하여 이를 理解하고 받아 들이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일을 可能케 하기 위해서는 基督教大學 專門人士로 構成된 基督教大學政策 및 目標設定協議體를 設置할 것을 提言한다.

2. 基督教大學의 이미지 浮刻과 霧圍氣 造成을 위한 提言 ;

基督教大學으로서의 이미지와 特異性 喪失의 主要因은 一般的으로 抽象的이고 不透明한 目標陳述과 構成員에 의한 理解缺如와 不信者 教授와 學生들의 증가 大學規模의 팽창에 의한 指導力의 未洽 그리고 지나친 學科偏重과 科目細分化에 의한 基督教 課程의 相對的 弱화와 諸課程이 基督教 價值體系로 統合을 이루지 못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언한 目標의 再陳述과 理解를 기초로 하여 校內외의 모든 課程과 活動과 解釋의 모든 尺度의 基準을 基督教 價值體系로 統一시키는 일과 이 體系를 根幹으로 하는 指導의 主力팀의 源泉處를 補強하고 組織化하는 일이 要請된다. 그 源泉處는 個別大學에 따라 學科나 單科大學이나 學內의 特定機構中 어디에 두어도 좋을 것이다.

3. 教育機能의 擴大를 위한 提言 ;

韓國의 基督教大學은 대체로 大學캠퍼스내로 찾아온 學生들만을 對象으로 하는 學部(Undergraduate) 中心教育에 置重하기 때문에 主로 中산층 이상의 高소득층의 子女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리하여 地域的, 經濟的, 職業的 및 制度的(예, 예비고사제 등)인 理由로 疎外된 教育希望者에게는 教育의 機能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基督教大學은 이와 같은 疎外된 各층의 子女까지도 무슨 形態로든지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그 機能을 擴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강습, 擴張강좌(Extension program) 各층 短長期 課程 등의 各층 繼續教育體制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將次는 校外生 學位制度(External Degree Program)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提言한다.

4. 大學機能의 強化를 위한 體制改善과 條件 整備를 위한 提言 ;

大學의 機能을 보다 더 強力하게 發揮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現 大學의 體制를 分化시켜 이를 再統合하는 課業이 要求된다. 卽 教育機能의 強化를 위해서는 教育에 관련되는 基本要素—內容, 人員, 資源(資料·機材), 方法, 時間, 施設等—를 分化시키는 한편 이를 再統合

시키므로서 學事體制를 整備하는 일이 要求되며, 研究機能의 強化를 위해서는 研究活動에 關係되는 基本要素들의 分化와 統合이 必要하며, 또 奉仕機能을 위해서는 奉仕活動에 動員되는 필수조건들을 分化시키는 한편 이를 다시 統合調整하므로서 奉仕體制를 再整備하는 일이 要求된다. 그리고 이 세가지 機能을 獨立的으로나 全一體的으로 相互補完하므로서 보다더 強力한 機能發揮을 可能케 하도록 調整統合하는 運營機構의 體制改善이 要求되는 것이다.

換言하면 大學의 3大機能인 教育·研究·奉仕 機能을 相互關聯시켜 統合을 이루는 일이 要求되는바 이 일을 위해서는 보다더 효율적인 教授—學習 體制의 개발과 이 교수—학습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支援體制로서 學習資源센터(Learning Resources Center)같은 統一的인 支援機構의 設置가 必要하며 各 體制의 強化를 위해서는 새로운 각종 Technology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지속적인 自體更新과 發展을 위해서는 自體 研究와 기획 개발을 담당하는 企劃調整機構의 設置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資源의 効用(可用資源의 善用)을 위한 提言 ;

大學의 機能發揮에 投入되는 諸資源(人的·物理的·財政的)의 不足은 現在 뿐 아니라 앞으로의 大學人口 爆增을 감안 할 때 더욱 심각하여질 것이 예상 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현재 大學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게 하는 主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最大限의 善用方案이 要請된다.

資源의 効用方案으로서 첫째로 現存施設의 活用時間을 연장하는 방안, 例컨대 全日制(1일 24時間) 年中無休制(1년 12個月) 活用과 이를 가능케 하는 寄宿舍 및 休息施設을 強化하는 일, 둘째로 同一-施設의 多目的 活用方案, 例컨대 강당을 예배, 강연, 시청각실, 연구발표 및 세미나, 음악, 대집단강의 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附帶施設을 補完하는 일, 셋째로 地域社會와의 긴밀한 協調를 이루어 人的 物的 資源을 지역사회로 부터 활용토록 하는 일 등의 方案을 제안한다.

6. 韓國基督教高等教育의 向上을 위한 協議體構成을 위한 提言 ;

마지막으로 韓國에 있는 基督教大學 間의 相互 協力과 보다 더 加速的인 變化發展을 促進하는 뜻에서 各 大學을 超越한 基督教大學 協議 機構의 設置를 提言한다.

이 機構의 構成員은 관계 機關의 代表人士(總長)와 前任 總長과 高等教育 專門人士와 卒業生 代表와 開發企劃 專門人士들로 構成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구를 通하여 發揮될 主要기능은 基本理念과 政策樹立, 大學間의 協力과 調整, 機關의 基準認定에 關한 審議 評價, 咨文 및 勸告, 發展 企劃의 構想 등이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Allan A Michie, *Higher Education and World Affairs*, New York: Education and World Affairs, 1968
2. Allen H. Barton, *Studying the Effects of College Education*, The Edward W. Hazen Foundation, 1959
3. Burnice H. Jarman, *Report on the Self-Study Survey of Ewha Woman's University*, Ewha Woman's Univ., 1961
4. Cameron P. Hall (ed.), *Human Values and Advancing Technology: A New Agenda for the Church in Mission*,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7
5.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Educational Technology;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earning Systems*, Paris; OECD, 1971
6.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Interdisciplinarity; Problems of Teaching and Research in Universities*, OECD, 1972
7.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in Education*, Paris; OECD, 1969
8.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The Nature of the Curriculum for the Eighties and Onwards*, Paris; OECD, 1972
9. Charles E. Silberman, *Crisis in the Classroom*, New York; Random House, 1970
10. Choh-Ming Li (ed.), *Asian Workshop on Higher Education, Address, Lectures, Reports and Working Paper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1969
11. Clark Kerr, *The Use of the University*, Harvard College, 1963
12. Commission o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econdary Schools, *Guide for the Evalu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1970
13. David E. Barbee, *A Systems Approach to Community College Education*, New York; Auerbach Publishers, 1972

14. David S. Bushnell and Donald Rappaport (ed.), *Planned Change in Education; A Systems Approach*, New York; Harcourt Brace Jouansevich, 1971
15. Erie Ashby, *Technology and the Academics; An essay on Universities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1963
16. Frank W. Banghart, *Educational Systems Analysis*, London; The Macmillan Co., 1969
17. Gary R. Weaver and James H. Weaver (ed.), *The University and Revolu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69
18. Guy Oddie, *School Building Resources and Their Effective Use*, Paris; OECD, 1966
19. H.J. Perkin, *New Universities in the United Kingdom; Case Studies on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Paris; OECD, 1969
20. Harold Boeschstein, et al *The University and World Affairs*, 1961
21. Henry C. Herge, *The College Teacher*,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1965
22. John Henry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New York; Rinehart and Co., 1960
23. Lord Robbins, *The University in the Modern World*, London; Macmillan, 1966.
24. Louis Joughin(ed.), *Academic Freedom and Tenure*, Madison, Milwauke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7.
25. M. Blaug (ed.), *Economics of Education I.II.*,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26. Myron F. Wicke, *On Teaching in a Christian College*. Nashville; Division of Higher Education, Methodist Church, 1958
27. Myron F. Wicke, *The Church-Related College*,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Washington D. C.; 1964
28. Morton A. Rauh, *The Trusteeship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9.
29. OECD, *Development and Economy in Educational Building*, Paris; OECD, 1968
30. OECD,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1950-1967*, Paris; OECD, 1971
31. OECD, *Educational Policies for the 1970's*, Paris; OECD, 1971
32. Paul L. Dressel,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1
33. Paul Woodring,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A Reassessment*, 1968
34. Randolph Crump Miller, *Education for Christian Living*,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956
35. Se Hee Ahn, *Academic and physical planning of Yonsei University*. Seoul; Yonsei Uni. press, 1971
36. Seymour E. Harris (ed.),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Economic Problem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37. *Standards of the College Delegate Assembly of the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Atlanta; Georgia, 1971
38. Stanley Salmen, *Duties of Administrators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1971
39. Technical Development Center of Korea, *A General Survey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DC, 1967
40. William H. Morris (ed.), *Effective College Teaching*,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70
41. William Mansfield Cooper et al,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6

A Preliminary Survey for the Evaluation on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the Institutions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Korea

Choe, Jee Woon

Summary

1. The stated objectives not only were not regarded as appropriate and clearly understood by students, professors and related members of the institutions, but in general these respondents had not deeply reflected on the objectives in relation to their daily lives.
2.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a necessity for existence of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n society, existing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unable to demonstrate their Christian uniqueness to any great extent.
3. Present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regarded themselves as the institutions or producing "advanced citizens" and "leaders", and further expected to remain in the position to produce such persons.
4.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should focus their efforts in the future on the endeavour to produce honest and creative individuals who have affection and the spirit of service, who back up their words with consistent lives, and who can lead productive lives as integrated well-balanced human beings.
5. Administration, faculty, staff, and students, along with concerned alumni and other church leaders are called upon to re-examine and re-establish, somehow, the objectives of the existing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objectives ranging from school policy, and overall education to those of individual colleges and departments within a university.
6. Present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should educate, of course, socio-economically well-to-do children, but especially provide for the children of the common people who are isolated economically, culturally and geographically.
7. It is only fair to maintain a Christian program (chapel, religious subject-matter, religious activity program) which has been provided as a required field of study. The educa-

tional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however, has not been great, according to some professors and students, and there were requests to assign it as an optional course in the future.

8. The need is critical for improvement in matters relating to overall components of the structure of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educational, objectives, curriculum and instruction, organization of setup, research work, student guidance, welfare facilities, school finance, etc.)

9. There is a need for close cooperation among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To put this in more concrete terms, there should be collective effort to realize professor exchange, joint research work, program and project development,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on use of facilities. Between theological seminaries and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well, there needs to be agreement to let students from outside attend lectures, and the merger of some colleges or universities with theological colleges.

10. Matters which are most urgently and indispensably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present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1) recruitment of competent professors, (2) solution of financial problems, (3) reorganization of curriculum, (4) employment and guidance on major subject matter, (5) inducement of good students to apply for admission, and (6) improvement in physical facilities.